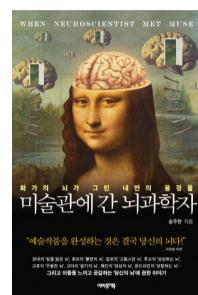


예술하는 뇌, 감상하는 뇌



미술관에 간 뇌과학자

송주현 지음



인체해부학에 조예가 깊은 화가는 레오나르도다빈치였다. 그는 소의 두개골을 절개해 뇌혈관을 세밀하게 그렸다. 펜으로 드로잉해 수채화의 채색기법으로 남겼다. 뇌혈관을 그린 최초 해부학 스케치로 평가받는다.

다빈치의 인체 스케치는 의학사에서 주요한 자료로 인식된다. '뇌와 두개골 연구'에서 두개골 내부뇌실, 감각경로를 스케치하기도 했다. 뇌신경 기시부와 경로를 표현한 '뇌신경은 혼대 해부학 교재'에서도 곱질 인용될 만큼 유명하다.

다빈치와 달리 '해부학자'인 배살리우스는 인체 곳곳을 그렸다.

'인체구조에 관하여' (1543년·총 7권)는 인체를 그린 정확하면서도 예술적인 도판집으로 알려져 있다. 뇌막, 소뇌, 대뇌피질, 두개골의 내부 외에도 뇌신경의 기시점과 배열까지 다루고 있다.

단면도, 입체도를 병치한 편집은 신체를 넘어 인간 존재까지 담아냈다는 점에서 '해부학 미술'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가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라고 일컫는 것은 그런 연유다.

'미술관에 간 뇌과학자'는 흥미로우면서도 이색적인 책이다. 미술과 그림, 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뇌과학자인 송주현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교 교수다.

미래의 의사들에게 인체와 뇌의 경이로운 구조를 가르치는 그는 미 스텐퍼드대와 앤스비어가 공동 산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뇌과학자인 저자가 방과 후 향하는 곳은 아틀리에다. 그는 오래 전부터 '리현'이라는 이름의 서양화가로 활동해왔다. 개인전 7회, 단체전 6회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은상을 수상했다. 과학자이자 예술가로 두 역할을 해온 융합형 지식인이다. '아티언티스트'다.

책 전면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뇌다"이다. 결국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뇌라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감상하는 것"이다. 특정 그림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

끼는 순간, 수십억 개 신경세포들이 뇌 내부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다.

책에는 모네, 호퍼, 렘브란트, 칼로, 칸딘스키, 피카소 등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킨 화가들의 뇌를 '해부'하고 조명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일생생 빛을 헌아 그림에 투영했던 화가 모네는 '빛이 춤추고 색이 숨 쉬는 순간'을 그린 예술가였다. 그에게 불행이 닥친 건 1910년 백내장을 앓으면서다.

시야가 흐려졌고 색은 바래졌다. 명암대비와 색채인식 저하가 나타나는데 파란 계열을 감지하는 S주파수 세포 손상으로 파란색 지각이 제일 먼저 저해됐다.

저자는 '수련 연작'을 예로 백내장 전후를 살핀다. 1903년과 1906년 작 '수련'은 꽃잎과 나무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지만, 1915년 작은 상대적으로 색물이 거칠어 보인다. '일본풍 다리'도 그런 경우다. 1889년 작과 1922년 작은 붓터치와 색상 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칸딘스키는 음을 색으로 시각화한 화가다. 'Composition VII: 구성 7'은 블루를 비롯해 엘로, 레드 등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져 있다. 무질서하게 표현된 추상적 형태와 색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를 일컬어 '추상미술'의 선구자라는 말은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그의 책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칸딘스키는 음악의 영감을 화화에 적용했다고 밝

혔다. '시각적 교향곡'을 구현한다는 것은 '소리를 그린다'는 뜻이다. "소리를 색으로 느끼고 색에서 소리를 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저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들의 작품과 뇌를 연관시킨 사례를 풀어낸다. 호퍼의 '불면의 뇌', 칼로의 '고통스러운 뇌', 고흐의 '우울한 뇌', 고야의 '광기의 뇌', 몬드리안의 '상컬하는 뇌' 등 독자들에게 상상의 재미와 지식을 선사한다.

또한 그들의 작품을 느끼고 공감하는 우리들의 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어바웃어복·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거, 다 과긴장이에요

오쿠다 히로미 지음, 한주희 옮김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긴장' 상태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 후 집에 돌아와도 회사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밤이 되면 불안이 더 커지며 잠들기조차 쉽지 않은 경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과 의사자 산업보건으로 25년 넘게 직장인의 정신건강을 진료해온 오쿠다 히로미는 이같은 현상을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장기간 긴장 모드로 고착된 '과긴장'이라고 정의한다.

저자가 펴낸 '그거, 다 과긴장이에요'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심신 회복 체방전이기도 하다.

과긴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일과 관계, 디지털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 현대인의 일상적 조건 속에서 누구나 빠지기 쉬운 보편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긴장이 지속되면 두통·이지럼증·불면·짜증·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신체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본래의 퍼포먼스는 떨어지며 회복력을 급격히 악화된다.

저자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강조하며 지금 당장 과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은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과긴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함께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인 휴식(Rest), 이완(Relaxation), 오락(Recreation)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과긴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 관계 부담, 정보 과부하 속에 놓인 현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을 짚으며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심신 관리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어셈그레이아·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엄마만 남은 김미자

김종미 지음



"행복한 삶은 혼자 이를 수 없다." 누군가의 기억이 서서히 지워질 때 그 곁에 남는 사람은 무엇을 불들고 버틸 수 있을까.

김종미의 새 애세이 '엄마만 남은 김미자'는 인지장애를 앓는 엄마를 돌보는 일상에서 출발해 한 가족의 병력을 넘어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따라간다. 엄마가 '엄마'라는 이름만 남기고 점점 사라져갈 때 저자는 처음으로 "김미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인천 변두리와 산동네, 만석동 광이부리말을 거쳐온 엄마의 시간을 살피다 보면 이 야기는 자연스레 외할머니·친할머니 세대로 이어진다. 신포시장에서 자기 기준대로 값 흥정을 하던 외할머니, 깊어진 이웃에게 기꺼이 밥을 내어놓던 친할머니의 모습 속에는 "가난은 힘이 없지만 사랑은 힘이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몸으로 이어졌는지가 담겨 있다.

책은 여성의 고된 노동과 책임뿐 아니라, 산업화와 전쟁 속에서 무너진 남성들의 삶, 부녀 관계의 상처, 장남과 딸에게 주어진 과도한 짐까지 함께 포착한다. 빈민운동과 공동체 활동으로 오랫동안 '기찻길옆공부방'과 '기찻길옆작은학교'를 지켜온 저자는 자신의 삶 또한 엄마와 할머니 세대의 가치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되짚는다.

애세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곁'이다. 거북시장에 가야 겨우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엄마, 빗마루와 평상을 내어 동네 사람들의 몸을 기대게 했던 외할머니, 밤늦게까지 공부방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곁을 지켜온 저자까지 책 속의 인물들은 우리 모두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다.

<사계절·1만9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계엄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일숙 지음

2024년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닥친 그 새벽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뒤흔든 사건으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고, 시민들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군용차와 총구 앞에 섰다. 연말과 새해에 대한 설렘 이 아닌 "운석열 탄핵"을 외치는 이들의 응원봉 불빛이 추운 겨울의 거리를 덮었다.

한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국가는 가까스로 회복력을 증명했지만 사태의 진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일숙은 '계엄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를 통해 12·3비상계엄은 비정상적 대통령의 우발적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 이후 성숙을 이뤘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회귀의 흐름 역시 꾸준히 잦아져 있었다는 것이다.

책은 12·3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해방 이후 계엄의 역사를 처음부터 짚는다. 미군정 아래 1946년 대구에서 내려진 첫 계엄, 정부 수립 직후 여순사건과 제주 4·3에서의 계엄령, 6·25 전쟁기와 이승만 정권의 '부산정치파동' 등 계엄은 늘 국가 위기를 핑계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5·16 쿠데타와 박정희 체제의 6·3 계엄·유신 비상계엄, 신군부가 무력 장악에 이용한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은 계엄이 언제나 권력의 손에서 위험하게 변주되어 움음을 드러낸다.

저자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해온 한국 사회가 되짚어야 할 중대한 경고였다고 강조한다. 전쟁과 계엄이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기록을 통해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가날·1만75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